



[산업]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용 폴더블 운전대 개발 06



Life

[라이프] 유행가 빵빵한 '베이커리 大戰' 니



서울시민 62% “보행환경 만족”... 가장 열악한 곳은 서남권

신체활동·보행환경 만족도 조사 보행환경 송파구 1위, 금천구 최하위 도심권·서남권, 근린환경 낙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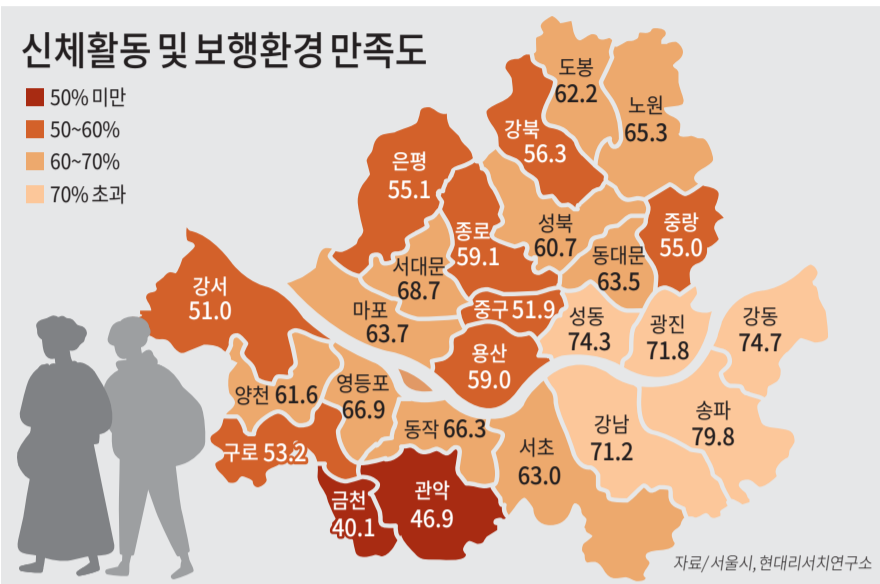
서울 5개 권역 중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은 서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8~69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인식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본 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신체활동 및 보행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2.5%였다. '보통이다'는 29.1%, '만족하지 않는다'는 8.4%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64.1%), 연령대별로는 40대(65.2%), 권역별로는 동남권(73.1%)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79.8%로 만



족도 1위를 차지했다. 강동구(74.7%), 성동구(74.3%), 광진구(71.8%), 강남구(71.2%)가 그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동남권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상위 5위권 내 안착했다. 반면 금천구(40.1%)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어 관악구(46.9%), 강서구(51%), 중구(51.9%), 구로구(53.2%) 순으로 신체활동과 보행환경 만족 비율이 낮게 나왔다. 하위 5위권에 서남권에 속한 4곳(금천·관악·강서·구로구)이 이름을 올려 신체활동과 보행환경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권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체 응답자의 14.9%는 '지금 사는 동네의 근린환경이 작년과 비교해 낙후됐다'는 의견을 냈다. '보통이다'는 54.7%, '낙후되지 않았다'는 30.4%였다.

서울 5개 권역 중 도심권과 서남권에 서 낙후됐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중구(25.9%), 종로구(24.2%), 금천구(22.7%), 관악구(20.7%), 성동구(18.7%)에서 낙후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68.5%)은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 공공 운동시설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17.8%, '모른다'는 13.8%였다. 동북권(73.4%), 동남권(70.4%), 서남권(66.2%), 서북권(63.1%), 도심권(57.2%) 순으로 공공 운동시설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 운동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5.1%였고, '없다'는 44.9%였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공공 운동시설의 가격이 '보통이다'(53.4%)고 했다. '적정하다'는 37.4%,

'비싸다'는 9.2%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78%는 규칙적(44.6%) 또는 비규칙적(33.3%)으로 신체활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활동을 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건강유지·증진을 위해서'가 69.6%로 가장 많았다. 체중조절을 하기 위해서(46.6%),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19.7%), 건강이 안 좋아서(15.1%), 운동을 좋아해서(12.1%),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서(6.4%),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해서(2.1%)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들이 최근 1주간 10분 이상 걸었던 날은 평균 4.9일이었고, 하루 평균 47.64분 걷기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리서치연구소는 "운동을 하는 서울시민의 비율은 77.9%였고, 거주 지역에 공공 운동시설 또는 산책로가 설치된 경우 신체활동량과 걷기 실천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국내 최대규모 패션수주박람회 연다

내일부터 19일까지 트레이드쇼 개최 해외·국내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수주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2022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이하 트레이드쇼)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 바이어와 디자이너 간 수주 상담과 계약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패션 수주박람회다.

서울패션위크에 함께하는 브랜드 31개(서울컬렉션 21개, 제너레이션넥스트 10개)를 포함해 120여개 우수 디자이너



작년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모습. /서울시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국내·외 유통사와 투자사 등 총 1000명 이상의 패션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시는 트레이드쇼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매칭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의 선호도를 분석하

고 기존 수주실적을 검토해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와 바이어를 사전에 연결하고, 현장에서 일대일 온라인(Zoom)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주상담은 ▲중국·미주·유럽 등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 ▲국내 바이어와 오프라인 상담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은 13~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과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리며, 해외 바이어는 화상으로 참여한다. 오프라인 상담은 13일부터 15일까지 DDP 알림1관에서 펼쳐진다. 국내 바이어는 모바일 초대장을 통해 사전 등록 후 방문 가능하다. 사전 등록은 패션코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폐가전 재활용해 온실가스 12만t ↓

11년간 3만t 폐전자제품 수거·처리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통해 3만t이 넘는 폐전자제품을 수거·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조성한 시설이다. 2009년 문을 연 이후 9월까지 센터에서 거둬들여 처리한 폐전자제품은 3만 6000t, 폐휴대폰은 173만대다.

센터가 재활용한 유가물은 고철 8477t, 합성수지(플라스틱) 1만2000t,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작업 모습. /서울시

구리 123t, 비철금속 4718t을 포함 총 2만9486t에 달한다. 판매액은 200억원이며, 재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2만t에 이른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백신접종센터·학교 등에 신진작가 작품 전시

서울시 37개 시설에 전시공간 마련

서울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백신예방접종센터, 학교 등 관내 37개 시설에서 '모두에게 멋진날들' 전시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직접 미술관과 전시

장을 찾기 어려운 때,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감염병 사태로 미술관이 문을 닫아 피해를 입은 신진 미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작품 650

여개를 사들였다.

모두에게 멋진날들 전시는 동작구 백신예방접종센터(사당종합체육관, 동작구민체육센터), 강남구 백신예방접종센터(강남관광정보센터)를 포함 5개 자치구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운영된다. 자연과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접종을 앞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12일 (화) 음력 : 9월 7일

수도권 날씨 15~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7 | 해질 / 17:59

지역별 날씨: 연천 12/22, 동두천 13/21, 가평 13/21, 파주 13/21, 서울 15/21, 양평 14/21, 인천 16/20, 수원 16/20, 용인 16/20, 평택 15/20, 백령도 15/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5.6%로 하향
▲재닛 옐런 “美의회, 글로벌 최저한세율 승인 확신” /사진 뉴시스

▲‘전력난 우려’ 인도, “석탄 공급 증가할 것”
▲탈레반 “美,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키로 합의”



▲러시아 타타르스탄서 비행기 추락... 16명 사망 /사진 뉴시스
▲페이스북, 10대 사용자 제한 경보시스템 발표